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와 관련 시설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와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 년 사망 추정)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에야스는 마쓰다이라 가문의 제 9 대 당주이자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설자입니다. 그의 조상인 지카우지는 초대 당주였습니다. 신사의 정식 명칭은 '하치만 신사 마쓰다이라 도쇼구'로 경내에는 마쓰다이라 가문과 무가 수호신인 하치만 신도 모셔져 있습니다.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는 일본에 100 곳 이상 있는 도쇼구 신사 중 하나입니다. 도쇼구 신사의 시초는 이에야스가 처음 묻혔던 시즈오카현의 구노 산에 있는 구노잔 도쇼구 신사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쇼구 신사는 이에야스만 모시고 있었지만,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는 마쓰다이라와 도쿠가와 가문의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 지카우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는 마쓰다이라 가문의 자손이 20 세기까지 거주했던 마쓰다이라 저택 터에 세워졌습니다. 1619 년에 세워진 도쇼구 신사는 이곳에 이미 세워져 있던 하치만 신을 모신 신사 옆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하치만 신사는 부지의 북동쪽 구석에 있으며, 도쇼구 신사는마쓰다이라 저택이 철거된 후 1931 년 현재 위치에 신사 건물을 재건립했습니다. 2015 년, 이에야스 사후 400 년을 기념해 본전을 개보수했습니다. 배전의 천장은 도요타시에 거주하는 옻칠공예가 안도 노리요시(1947 년생)가 그린 화초 108 점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